절도범 제압한 여직원, UFC 취업

▲ UFC에 취업한 타파사와 그가 도둑을 제압하던 모습. 사진=meaww.com

지난해 일하던 가전 판매업체에서 맨손으로 절도범을 붙잡아 화제가 됐던 여성이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보안요원이 돼 화제다.

'meaww.com' 에 따르면 UFC 데이나 화이트(51) 대표는 최근 서머 타파사(25)가 얼마 전부터 UFC 보안요원팀에 합류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타파사는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UFC와 일한 지 8일째" 라면서 "내 경력이 앞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화제를 모은 타파사의 얽힌 사연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와이 호놀룰루의 가전제품 매장인 '베스트바이' 에서 일하던 타파사는 스피커를 들고 도망치려는 남성을 육탄 저지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타파사는 도둑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처럼 거세게 밀어붙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결국 제압했다. 그러나 타파사의 행동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되는 계기가 됐다. 회사 측은 고객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타파사를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으며 화이트 대표가 일자리 제안을 하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화이트 대표는 "지난 1월 타파사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46에 VIP 손님으로 초대했었다." 면서 "당시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타파사는 더 고민해보겠다며 하와이로 돌아갔다." 고 밝혔다. 그는 "이제 UFC 직원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엉덩이를 맞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운반용 잠수정'도 대량 생산

중남미의 마약카르텔이 주로 사용하는 잠수정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 월 23 일,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태평양 국제해역에서 잠수형 밀수 선박을 요격하고 2 톤 이상(약 69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사진=facebook (U.S. Coast Guard)

마약 운반용 잠수정은 콜롬비아 해안 인근의 밀림에서 은밀하게 건조된다. 워낙 은밀한 곳에 공장들이 숨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밀림의 공장에서 건조되는 마약 잠수정은 길이 5~6m 정도로 5톤 급의 소형이다. 2~3명이 탑승하고 최장 10시간까지 항해할 수 있다. 특히 유리섬유로 제작돼 레이더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잠시 수면 위로 부상하지만 않는다면 잠수정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면서 "유리섬유로 워낙 가볍게 만들어져 적발이 되더라도 악어처럼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 고 말했다.

마약 운반용 잠수정은 언뜻 보면 외형이 모두 비슷하지만 공장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다. 잠수정의 브랜드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가격은 공장마다 다르지만 대략 120만 달러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잠수정을 사들인 마약카르텔은 코카인 등을 주로 북미를 운송하나 최근에는 수천㎞나 떨어진 유럽으로도 범위를 넓혔다.

콜롬비아에서 잠수정을 사들이는 주요 고객은 멕시코의 마약카르텔이다. 이들은 카리브를 통해 미국으로 또는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데 잠수정을 투입하고 있다.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 멕시코로 마약을 1차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주력 수단도 이젠 잠수정이다.

5,00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친 스마트폰

알프스 상공으로 올라간 여성이 하늘에서 셀카봉을 꺼내 들었다가 신형 스마트폰을 잃고 말았다.

▲ 사진=bestwaynews.com

5일 'bestwaynews' (bestwaynews.com)는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주의 한 호수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나선 한 미국 여성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여성은 이날 오베르뉴론알프주 오트사부아 데파르트망에 있는 안시 호수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나섰다. 알프스 끝자락에 있는 안시 호수는 스위스와 프랑스에 걸쳐 있는 레망 호수를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알프스는 장관이었다. 강사와 함께 하늘로 오른 여성은 눈 앞에 펼쳐진 절경에 잇따라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리곤 황홀한 알프스 풍경과 자신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셀카봉을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을 한참 요리조리 조작해가며 알프스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기를 얼마 후, 여성이 왼손에 들고 있던 셀카봉을 오른손으로 바꿔 잡으려는 순간 손에서 미끌한 셀카봉이 강풍에 휘말려 곤두박질쳤다. 셀카봉에는 최근 마련한 신형 아이폰11 모델이 달려 있었다.

패러글라이딩 강사가 들고 올라간 카메라에는 여성이 놓친 셀카봉이 속절없이 추락하는 장면과 이를 허탈하게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5,000피트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추락한 셀카봉과 스마트폰은 까마득한 호수 밑으로 금방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